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18년 7월 22일 (넷째 주일)

성경본문 : 행20장 7-12절

설교제목 : “그 위에 엮드려”

오늘 본문은 유두고란 청년이 창가에 앉아 졸다가 죽은 이야기입니다. 유두고 사건은 표면적으로 보면, 죽은 자도 살리는 바울의 능력에 초점이 있는 듯 보이지만, 이 사건이 지니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두고 사건이 지닌 상징성이 무엇입니까? 유두고 사건은 ‘**그 주간의 첫 날, 떡을 떼는 모임**’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그 주간의 첫 날**’은 일요일, 즉 주일을 의미합니다.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는 것은 성만찬의 식사를 포함하는 예배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유두고 사건은 주일 예배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또한 누가는 본문의 구조도, 유두고의 사건을 7절과 11절에 ‘**떡을 떼었다**’라 내용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두고 사건의 상징성이 바로, 주일 예배와 연관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초대교회는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인 일요일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초대교회가 안식일보다 안식 후 첫 날인 주일을 지키는 일에 더 무게 중심을 두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매우 큰 의미를 지니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유두고의 사건은 부활의 역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7일을 머물렀습니다.(6절) 그런데 드로아에서 복음을 영접한 교인 중에는 상당수가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위해 하루 일과가 끝난 저녁 시간에 모여 주일예배를 드렸습니다. 바울은 다음 날에 떠나기로 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진액을 다 쏟아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이 길어졌습니다. 본문에 ‘**밤중**’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메소ኛτιον**’은 ‘**자정**’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말씀 강론이 밤 12시까지 계속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 ‘**강론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디알레고마이**’는 ‘**대화하다**’, ‘**논의하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주도적으로 강론을 했지만, 청중의 질문을 받아가면서 강론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로 모인 장소는 개인집 다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 유두고가 3층 창틀에 걸터 앉았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음을 이야기합니다. 넓은 공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그곳에 등불도 많이 켜다고 합니다. ‘**등불을 많이 켜다**’의 원어적 의미는 ‘**각양 각색의 많은 등불을 켜다**’는 뜻입니다. ‘각양 각색의 등불’을 켜놓은 이유는 당시 사람들이 예배처소의 부족한 등불을 보충하려고, 각자의 집에서 등불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넓은 공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그곳에 많은 등불을 켜기 때문에 방의 공기가 매우 탁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두고란 이름의 뜻은 ‘**복되다**’인데 이 이름은 당시 흔한 노예의 이름이었습니다. 따라서, 유두고의 신분이 노예였을 가능성이 큼니다. 유두고는 하루 종일 노예로 일을 하다 저녁에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사람들이 많아 공기도 탁한 데다가 창가에 걸터 앉았다가 바울까지 강론을 오래 지속하자 그만 졸음을 이기 못하고 3층에서 떨어져 죽게 된 것입니다. 유두고의 죽음은 여러 사람들이 확인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현장에 있었던 직업이 의사였던 본서의 저자 누가가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8-9절) 그런데 바울이 내려가서 유두고의 시신 위에 엮드려 그를 안았습니다.(10절) 여기에서 ‘**위에 엮드려**’란 행동은 성경에서 특수한 상황에만 사용되는 행동입니다. 구약의 엘리아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위에 엮드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수넬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위에 엮드렸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죽은 유두고 위에 엮드려 그 시신을 안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소란스런 성도를 조용히 시킨 다음 생명이 저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9절의 ‘**떨어지다**’는 말의 의미와 10절의 ‘**엮드리다**’는 단어는 오늘 유두고의 사건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단어입니다. 유두고

의 떨어짐은 사망의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반면, 바울의 오히려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기운이 덮는 상태를 상징합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죽음 위에 예수의 생명의 기운이 덮여 다시 사는 것이 부활입니다. 결국 유두고의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타난 부활의 현재적인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경험이란 단지 육체적 부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경험이란, 절망적인 영혼 위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현재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회복과 소생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유두고와 같이, 지친 육신과 영혼을 끌고 예배의 자리로 옵니다. 때론 파멸되고 절망하고, 어쩌면 모든 것이 끝나버린 심정으로 나아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러한 절망에서 소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영혼 위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임하시면, 새로운 소생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일 예배의 자리는 바로 이 경험을 하는 시간입니다. 주일 예배의 시간은 주님의 생명의 기운이 내 위에 덮이는 시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주권이 현재적으로 경험되는 시간이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유두고와 같습니다. 유두고와 같이 죄와 죽음의 노예로 힘겹게 사는 존재였습니다. 죄와 죽음이라는 절망의 운명을 이고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를 죄와 죽음의 절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감격과 기쁨을 맛보는 시간이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임한 자들만이 초대받은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주님의 생명이 내 위에 덮이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주님의 부활의 현재적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두, 주일의 감격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일은 다른 것 끊고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일 예배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한 분만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살펴보기

- 1) 유두고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 2) 초대교회는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인 일요일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 나누며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유두고 사건을 통해 누가가 전하고 있는 주일 예배 시간의 소중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날 주일성수의 신앙이 흐려지고 있는 현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